범어사 신도회장에 이윤희 태금정 대표이사

2월 18일, 정초기도 회향법회서 임명장 수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2008년부터 8년간 회장 경험해
이 회장 "과거 부족함 채울 것"
방장 정여 대종사 휘호로 격려

"범어사는 수행도량이자 부산시민의 정신적 안식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수행하고 기도하는 도량이 되도록 가람 정비와 불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신임 신도회장으로 이윤희 태금정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범어사는 2월 18일 보제루에서 열린 '갑진년 정초기도 회향법회'에서 이윤희 신도회장을 소개하며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윤희 회장은 "소임을 맡기 부족한데 믿어주시고 다시 회장으로 활동하게 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앞으로 범어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신도단체와 소통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장은 방장 정여 대종사와 수불 스님이 범어사 주지였을 당시 신도회장을 맡아 8년 동안 봉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방장스님과 수불 스님이 범어사 주지셨을 때 제가 신도회장을 지냈다. 부족한 모습이 많았는데 그 부족함과 아쉬움을 이번 기회에 채우라는 말씀으로 생각한다. 많은 경책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신도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주지 정오 스님과 이윤희 신도회장에게 각각 '보리군생(普利群生)'과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적은 휘호를 내리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여 대종사는 "정오 스님은 범어사 주지로 활동하며 더 많은 중생을 부처님께 인도하고 안내하라는 의미를 담아 글을 전달했다. 한 명이라도 더 부처님 품으로 이끌고 제도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희 신도회장은 '요익중생'의 의미처럼 많은 이들을 이익되고 풍요롭게 이끌어주기를 기원한다. 신도님들과 화합하고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초기도 회향법회에서 진행된 신도회장 임명식.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이윤희 신도회장이 임명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방장스님께서 주신 글을 화두로 삼아 주지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임명된 이윤희 회장님께서도 대중과 소통하며 범어사 발전, 부산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회장은 주식회사 태금정 수한기업 대표이사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부회장,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회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 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 한국BBS 중앙연맹 부총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KBS한국방송 전국 시청자네트워크 명예상임공동대표, 대한민국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 명예회장이다. 2012년 범어사 신도회장 당시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역 대학생들, 환경보살 서원

대학생불교연합 부산지부
부산불교환경연대 협약식

2월 18일, 7개 대학 동참
"환경문제 곧 나의 문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이하 대불련 부산지부)가 환경보살의 길을 서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김은정)는 2월 18일 부산 해운대 반야선원에서 '대불련 부산지부와 부산불교환경연대가 함께하는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대상은 인제대·부산대·동아대·해양대·부경대·동명대·대동대 등 대불련 부산지부 7개 대학이다. 협약식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 김도영(동명대), 윤나예(인제대) 씨 등 지부 학생들이 참석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이기도 한 안도 스님은 "지금 지구환경 오염은 세대를 초월한 전 인류적인 문제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성세대, MZ세대 구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지구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보호하고 보호받고, 치료하고 치료받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 문제와 같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환경문제가 바로 둘 아닌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대불련 부산지부 회원들.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지난 몇 해 동안 부산지부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침체되고 생기를 잃었다. 작년 정기총회 때 봉사활동이 활발한 지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환경운동에 각 지회가 함께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협약식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스님 말씀처럼 환경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알고 환경운동에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야선원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대불련 부산지부를 위해 '대불련 녹색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불련 녹색 아카데미는 환경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반야선원에서 진행하는 환경 법회에 동참한다.

한편 대불련 부산지부는 3월 1~2일 대원각사와 용궁사에서 리더십 캠프를, 3월 30일에는 범어사에서 대불련 합동법회 및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해인정사, 연초고에 장학금 500만원

2월 20일, 기도금 등 모아
"사찰서 명상 등 기회 제공"

거제 해인정사(주지 자원 스님)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

해인정사 주지 자원 스님과 윤동원 신도회장 등은 2월 20일 거제 연초고(교장 공현철)를 방문해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윤동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해인정사 불자들이 지난해 정월대보름과 부처님오신날 등 각종 기도와 법회를 통해 마련했다.

자원 스님은 "해인정사 이웃에 있는 연초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서 모범적인 학생들로 알려져 있다"며 "연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곳에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해인정사를 찾는다면 명상 등 마음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교장은 "지역 내 어려운 시설도 많은데 연초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뜻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교직원들과 상의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해인정사는 27년간 정월대보름이면 모감주 숲에서 거제시 한내면 지역주민과 삼성·대우조선소의 번창과 안전을 기원하는 동향사천왕재를 봉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논산훈련소 연무대 3000여 명 병사들에게 법회·아이돌 공연·공양 등의 활동을 펼쳐 군포교에 기여했다. 이 같은 공로로 주지 자원 스님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현불교대학 제6기 졸업식 봉행

27명 졸업…부동 품계증서도
박현자 불자, 포교원장상 수상

전주 수현사 불교대학(학장 일원 스님)이 제6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2월 18일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주지 응묵 스님) 3층 대법당에서 진행된 수현불교대학 제6기 졸업식에서는 입학생 34명 중 27명이 졸업했다.〈사진〉

박현자 학생회장을 비롯한 27명의 졸업생은 학장 일원 스님으로부터 졸업장과 신도품계 '부동' 품계증서를 받았다.

모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박현자 불자, 수현불교대학 학장상은 최현임 불자, 포교사단장상은 김정숙 불자와 임순자 불자가 수상했다. 또 원력상은 임대한 불자와 안복례 불자, 수현사 신도회장상은 임승민 불자, 수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상은 김향미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불교대학을 졸업한 이지유 학생에게는 특별 장학금이 전달됐다.



학장 일원 스님은 "오늘 졸업식을 축하드리며 더욱 정진하시고 포교사 고시에도 응시하시길 기대한다"며 "여러분들의 삶이 부처님의 법 속에서 더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자 불자는 "학장 일원 스님을 비롯해 주지 응묵 스님 등 강사 스님들과 함께한 도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농사일이 쉽지 않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씩 부처님 품 안으로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불교대학 수계법회 봉행

불교대학 재학생 15명
불법 따라 참 불자 서원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에서 운영하는 선운사불교대학 재학생들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선운사는 2월 18일 선운사 대적광전에서 '선운사 불교대학 삼귀의계 및 오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선운사불교대학 재학생 15명은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며 신행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계사로 법상에 오른 경우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수계제자들에게 일일이 연비하고 수계증을 수여했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불자들은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약수사, 요양병원 어르신 건강 기원

한우리요양병원서 효잔치 공연



부산 사하구 약수사(주지 혜우 스님)가 2월 16일 한우리요양병원을 방문해 효잔치 공연 및 간식을 전달했다.〈사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에는 약수암 주지 혜우 스님, 옥련암 주지 지연 스님,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성창용 부산시의원, 조재영 사하구의원을 비롯해 약수암 신도가 동참했다.

약수사는 이날 효잔치 외에도 과일과 빵, 음료수 등 200인분의 간식을 준비해 병원에 전달했다. 약수사는 한우리요양병원 개원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 효잔치와 자비행을 이어왔으며, 지역 경로당도 방문해 효 실천을 강조하고 선물을 전달해왔다.

약수사 주지 혜우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못 뵈다가 다시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걱정 없이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약수사와 신도님들께 감사하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정초기도 공덕 인재불사로 회향

중·고교생 11명에 장학금



인재불사도량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가 2월 18일 경내 대웅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장학금은 새해 정초기도 회향을 기념하며 중·고등학생 11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전달했다.

성문 스님은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한 가지 기술을 제대로 익혀 세계 최고 기술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을 보석 원석처럼 여기고 갈고 닦아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시라"고 덕담했다.

장학금 전달식 후에는 목종 스님 초청법회가 봉행됐다. 목종 스님은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해하고 성취하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쉼을 얻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고 얻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한편 선광사는 부산지역 불교언론 발전을 위해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에게 장학금 수여할 뿐 아니라 매년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및 저소득 소외 이웃을 위한 쌀 나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환우 돕기 등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남해 미륵암 갑진년 정월 방생법회

국태민안·순직 소방관 왕생발원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 스님)이 갑진년 정월을 맞아 수륙대재 용왕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미륵암은 2월 17일 남해 물건리 어부림 바닷가에서 미륵암 신도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법회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국태민안과 제주도 및 문경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를 열어 그 의미를 더했다.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방생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자비와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며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순직한 고혼과 일체중생을 위한 기도로 우리 사회가 재난과 재해가 없기를 바라는 동체대비의 원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